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카디안 글로벌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전 세계의 기업 가운데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주식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시가총액 약 2조원 이상의 전세계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 및 현금흐름 성장성이 돋보이는 기업의 주식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예측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매출/이익/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중목발굴을 위해 애널리스트들의 철저하고 세밀한 분석자료에 기반을 두는 상향식(Bottom-up)투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전략을 실시합니다.

-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의 투자는 AGF Investments 에서 운용업무를 위탁 받아 운용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882억 원

-모투자신탁 915억 원

펀드유형 주식형, 모자형, 종류형
-모투자신탁 편입비 : 100% 이하
-모투자신탁의 주식편입비 : 7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06년 08월 24일)

- 클래스 A : 2007년 01월 15일
- 클래스 A-E : 2016년 09월 01일
- 클래스 C : 2006년 08월 24일
- 클래스 C-E : 2013년 08월 20일
- 클래스 C-F : 2017년 07월 10일
- 클래스 C-P(퇴직연금) : 2006년 08월 24일
- 클래스 C-P(퇴직연금)E : 2018년 10월 26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 : 2019년 07월 25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E : 2019년 04월 17일
- 클래스 C-W : 2007년 03월 15일
- 클래스 S : 2014년 04월 23일
- 클래스 S-P2 : 2016년 07월 06일

벤치마크 MSCI AC World Local (T-1) 95% + Call 5%

신탁업자 HSBC(수탁사)

월 증 환헤지 비중 89.0%

선물 또는 선도 계약의 평가액(KRW) / 외화 자산의 평가액(KRW)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4영업일	7영업일
17시 경과후	5영업일	8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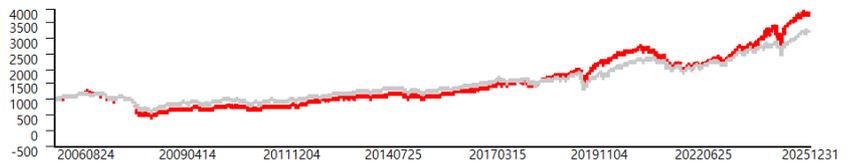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 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0.41%	0.65%	6.99%	19.58%	53.00%	85.76%	58.93%	277.83%
클래스 A	-0.58%	0.13%	5.90%	17.27%	47.17%	75.21%	43.94%	137.21%
클래스 A-E	-0.54%	0.28%	6.20%	17.89%	48.74%	78.03%	47.89%	184.53%
클래스 C	-0.62%	0.03%	5.69%	16.80%	45.99%	73.16%	41.13%	132.80%
클래스 C-E	-0.55%	0.23%	6.09%	17.66%	48.16%	76.99%	46.44%	213.77%
클래스 C-F	-0.49%	0.41%	6.48%	18.50%	50.27%	80.76%	51.75%	166.77%
클래스 C-P(퇴직연금)	-0.56%	0.21%	6.06%	17.61%	48.02%	76.74%	46.08%	102.79%
클래스 C-P(퇴직연금)E	-0.52%	0.32%	6.28%	18.06%	49.17%	78.80%	48.98%	139.58%
클래스 C-P2(연금저축)	-0.55%	0.22%	6.08%	17.64%	48.11%	76.90%	46.30%	87.78%
클래스 C-P2(연금저축)E	-0.52%	0.32%	6.28%	18.08%	49.20%	78.86%	49.06%	102.84%
클래스 C-W	-0.49%	0.42%	6.49%	18.52%	50.31%	80.88%	51.95%	46.98%
클래스 S	-0.52%	0.33%	6.30%	18.12%	49.32%	79.07%	49.36%	211.00%
클래스 S-P2	-0.51%	0.36%	6.37%	18.26%	49.66%	79.69%	50.24%	212.80%
벤치마크	1.50%	4.06%	11.59%	17.50%	38.38%	63.88%	62.52%	224.70%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낸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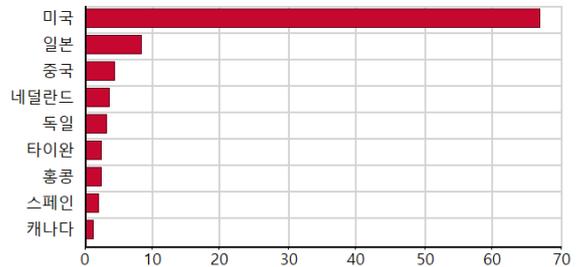


출처: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5년 12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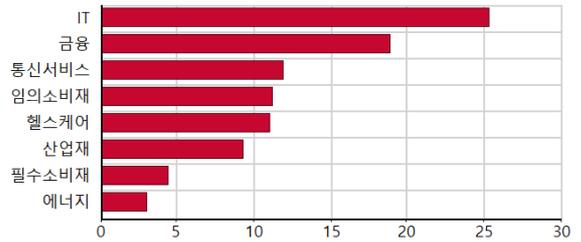
<국가별>

순위	자산명	비중(%)
1	미국	66.90
2	일본	8.50
3	중국	4.50
4	네덜란드	3.60
5	독일	3.50
6	타이완	2.60
7	홍콩	2.40
8	스페인	2.20
9	캐나다	1.30



<주식 업종별>

순위	자산명	비중(%)
1	IT	25.40
2	금융	18.90
3	통신서비스	12.00
4	임의소비재	11.20
5	헬스케어	11.10
6	산업재	9.40
7	필수소비재	4.40
8	에너지	3.10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5년 12월말 기준, 모투자신탁 주식비중)

종목명	국가	섹터	비중(%)
NVIDIA Corp	미국	IT	5.2
Apple Inc	미국	IT	4.7
Tokyo Electron Ltd	일본	IT	4.6
L3Harris Technologies Inc	미국	산업재	4.5
Amazon.com Inc	미국	임의소비재	4.5
Tencent Holdings Ltd	중국	통신서비스	4.5
Broadcom Inc	미국	IT	3.9
Danaher Corp	미국	헬스케어	3.8
Alphabet Inc	미국	통신서비스	3.6
Goldman Sachs Group Inc/The	미국	금융	3.4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시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2.01% (판매 1.1%)
- 클래스 A-E : 총 연 1.46% (판매 0.55%)
- 클래스 C : 총 연 2.41% (판매 1.5%)
- 클래스 C-E : 총 연 1.66% (판매 0.75%)
- 클래스 C-F : 총 연 0.94% (판매 0.03%)
- 클래스 C-P(퇴직연금) : 총 연 1.71% (판매 0.8%)
- 클래스 C-P(퇴직연금)E : 총 연 1.31% (판매 0.4%)
- 클래스 C-P2(연금저축) : 총 연 1.68% (판매 0.77%)
- 클래스 C-P2(연금저축)E : 총 연 1.3% (판매 0.39%)
- 클래스 C-W : 총 연 0.91% (판매 0%)
- 클래스 S : 총 연 1.26% (판매 0.35%)
- 클래스 S-P2 : 총 연 1.14% (판매 0.23%)

(공통사항)

운용 0.84%, 신탁 0.0575%, 사무관리0.012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납입금액의 1.2% 이내
- 클래스 A-E 납입금액의 0.6% 이내
- 클래스 C, C2, C3, C4, C5, C-E, C-F, C-P, C-PE, C-P2, C-P2E, C-W, S, S-P2: 없음

후취수수료

- 클래스 S : 환매금액의 0.15% 이내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12월 글로벌 주식시장은 혼조세 속에서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으로 한 해를 마감하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연말 차익실현의 영향으로 기술주와 AI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매도 압력이 나타난 반면, 경기민감주와 가치주는 연말 연휴로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럽 주식시장은 미국 통화정책 완화 기대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주요 선진국 시장이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하였습니다. 글로벌 성장 둔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민감성은 여전히 존재했으나, 유럽 기업들의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는 비교적 견조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아시아 선진국 증시는 월중 간헐적으로 회복력을 보였지만, 신흥국 시장은 중국의 간헐적인 변동성과 불균형한 내수 수요에 대한 우려로 보다 혼조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기술주와 AI 업종은 글로벌 통화정책 기대 변화와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인해 이전의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치주 성과가 성장주 성과를 상회하면서 모펀드에서는 비교지수 성과를 하회하였습니다. 통신서비스, IT, 금융 업종에서의 종목선택이 필수소비재와 산업재에서의 종목선택 효과를 상쇄하였습니다. 지리적 관점에서는 스페인, 브라질, 독일 시장에 대한 배분이 펀드 성과에 성공적이었고 미국, 네덜란드, 한국 시장에서의 배분은 펀드 성과에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기술과 혁신이 시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경기순환 섹터와 중소형주, 미국 외 지역으로 수익 기여가 확대되며 시장의 폭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정 확대와 우호적인 통화 여건이 맞물린 정책 환경은 투자와 성장을 지지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OBBB 정책과 규제 완화는 제조업·인프라·AI 및 첨단 산업 전반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누적 금리 인하는 금융 여건과 신용 접근성을 개선하며 위험자산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불확실성, AI 중심의 시장 집중도는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와 AI 확산에 따른 생산성 개선, 헬스케어의 구조적 성장 기회는 여전히 매력적이며, 포트폴리오에는 경기순환적 성장과 헬스케어 비중 확대를 통해 균형과 회복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장 환경 속에서도 펀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영역에서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변화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하여 미래 리더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 운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